

《평화는 나의 여행》 쓴 평화활동가 임영신

“평화가 ‘길’입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아름다운 나라(美國)는 그토록 강조했지만 그들이 바랐던 평화는 미망(迷妄)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제 이라크에서 ‘평화’라는 말은 사라져 버린, 기억의 저편에만 존재하는 단어라 생각했다.

2003년 이라크반전평화팀 일원으로 이라크를 다녀온 한 여성을 만났다. 미국이 이라크 땅에 폭탄을 퍼붓는다면, 나는 그 땅에 평화의 폭탄을 퍼붓겠노라 다짐했던 사람, 그는 놀랍게도 세 아이의 엄마다. “그때는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지금은 세 아이의 엄마”라며 미소 짓는 임영신의 얼굴이 해맑다. 그가 이라크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라가 바랐던 평화는 누리지 못했지만, 저마다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 다름 아닌 ‘마음의 평화’를 말이다. 이라크 모술에서 만난 젊은 부부는 미군의 폭격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이렇게 말했다.

“다시 전쟁이 온다 해도, 폭탄이 쏟아진다고 해도 이 강가에 와서 물을 끓이고 차를 마실 거예요. 전쟁이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걸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쟁보다 강한 일상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깊어지고 간 평화의 폭탄에서 평화를 한 움큼씩 꺼내 ‘불행한’ 이라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리라 생각했지만, 실상 그가 나누어 준 것은 없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 앞

에서 울어야 했고, 그들이 몸으로 전해준 평화를 체득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평화는 나의 여행》의 저자 임영신은 그렇게 평화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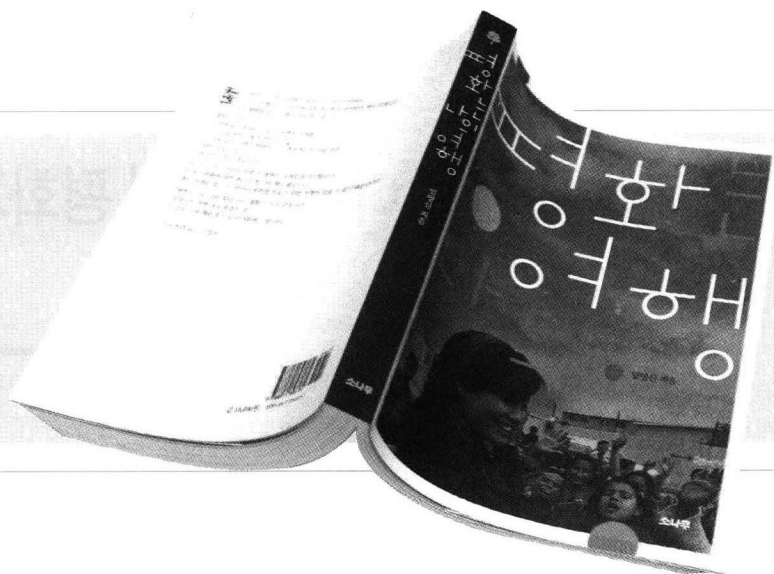
평화 여행의 동반자가 된 아들

임영신에게 평화는 ‘여행’이다. 여행은 만남을 만들게 마련이고, 만남은 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낸다. 그 관계는 평화를 이뤄가는 밑바탕이 된다. 그가 이라크에서 만난, 위험한 이라크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준 수아드는 전쟁과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흔들리는 임영신에게 엄마가 되어 주었다.

‘수아드 엄마’는 종전 후 평화의 증인으로 한국에 초청되어 전쟁의 잔혹함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영신에게 반가웠던 일은, 그가 출산한 셋째 슬빛이의 탄생을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 준, 새 생명 탄생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행은 만남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통로가 된다.

사실 임영신의 평화 여행은 순탄치만은 않은 여정이였다. 홀연 단신이라면 모를까, 한 남편의 아내이며 당시 두 자녀의 엄마였던 그에게 이라크 행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6살 늘봄이의 물음은 끝이 없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경제봉쇄로 50만 명의 아이들이 간단한 약이 없어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막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평화가 전쟁보다 힘이 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건만” 말이다.

“꼭 엄마가 가야 해요?”라는 물음 속에서, 엄마의 부재가 아이들에게 더 크고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평화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평화의 힘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평화마저 빼앗긴다는 것을, 군대와 전쟁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삶으로 말해 주고 싶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9살이 된 늘봄이는 엄마의 필리핀으로의 평화 여행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용돈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화가 바로 길

임영신은 올해부터 제천 간디학교에서 평화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에게 “진실을 보여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흘 남짓한 이라크에서의 여행으로 과연 이라크 사람의 눈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이라크의 수아드 엄마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라크 사람의 눈으로 이 전쟁을 기록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의 눈으로 이 전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지요? 평화의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되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세요.”

그렇게 그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세 자녀의 그리고 간디학교 아이들의 평화 선생님이 되었다. 그렇다고 임영신은 이라크 혹은 분쟁 지역의 상황과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 요령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다. 평화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평화는 ○○이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평화는 나의 ○○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대답을 내놓는다. 그렇게 아이들은 저마다의 평화를 배우고 몸으로 체득한다.

전쟁이 한창인 나라, 찢어진 이라크 친구들이 금귀고리를 빼주고, 자신들의 며칠 식량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며 평화는 마음자리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다. 그들과의 만남 자체가 임영신에게는 귀한 배움의 장이요, 성장의 터전이었던 셈이다. 그가 평소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평화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바로 길”임을 그는 확신한다.

평화의 실체, 만남과 사랑

평화를 위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제 아무리 거창한 평화라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지 못하면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꺼내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평화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임영신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 바로 ‘평화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모를 아이들에게 총 대신 평화의 책을, 죽음의 씨앗 대신 평화의 씨앗을 보내자는 것이다. 그 첫 프로젝트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아체 평화도서관 만들기이다. 인도네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아체, 그곳에 평화도서관을 세우는 것이다.

출판사에서라도 그 뜻에 동의해 10월까지 판매되는 《평화는 나의 여행》의 수익을 이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액기부자들보다(?) 임영신이 마음을 들이는 것은 ‘평화장터’를 통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아끼는 책을 스스로 팔고 기부하면서 평화란 쉬운 것이구나, 배우고 실천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임영신의 평화를 향한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평화가 바로 길임을 이라크, 전쟁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분노가 아니라 ‘만남과 사랑’이 평화의 실체임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평화할 것이다. **한겨레**

취재_정동석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